

KDB DAEWOO DAILY

2012. 12. 27 (목)

코스피지수 (12/26)	1,982.25P(+0.43P)
코스닥지수 (12/26)	482.76P(-1.00P)
KOSPI200지수 3월물	263.60P(-0.05P)
중국상해종합지수 (12/26)	2,219.13P(+5.52P)
NIKKEI225지수 (12/26)	10,230.36P(+150.24P)
원/달러 환율	1,073.20(-1.00)
국고채 수익률 (3년)	2.88(+0.01)
유가(WTI) (12/26 19:01)	89.15(+0.41)
국내주식형수익증권(12/21)	680,569억원(-4,754억원)
해외주식형수익증권(12/21)	262,063억원(-401억원)
고객예탁금(12/21)	172,448억원(-1,485억원)
신용잔고(12/21)	40,625억원(-300억원)

시황전망

1월 효과, 기대할 만하다

선물옵션 분석

(선물의 눈) 외국인 비차익 PR 순 매수 심상치 않다

산업분석

철강금속 - 전승훈: 추가 상승시 매도인가 조정시 추가 매수인가?

주체별 매매동향

KOSPI200 선물시장 통계

주가 지표

1월 효과, 기대할 만하다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 1월 효과 현실화 예상

이제 2013년 초반의 증시흐름이 어떨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커질 시기이다. 그에 따라 주식을 팔고 올해를 넘길 것인지 보유한 채로 넘길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엇갈리기 때문이다. 통상 연말 연초에는 이른바 1월 효과의 현실화 여부에 관심이 크다. 그리고 2000년 이후의 외국인 매수세와 주가의 흐름을 보면 1월 효과에 대한 기대감은 현실성이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1999년 이후 12월 증시는 평균적으로 2%의 상승세를 나타냈고, 1월은 1% 상승했다. 상승횟수는 13차례 중 각각 9회와 8회를 기록하면서 상승을 나타낸 사례가 하락한 사례보다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008년 글로벌 위기가 불거진 시기를 제외하면 1월의 상승률 평균이 12월보다 더 높다.

특히 기대되는 것은 외국인 순매수의 1월 효과이다. 2000년 이후 외국인은 2008년을 제외한 모든 해의 1월에 순매수를 기록했다. 적어도 외국인 순매수에 있어서는 1월 효과가 존재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최근 글로벌 증시 역시 코스피의 안정적인 흐름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다. G2의 경기회복 기대감과 유럽 지역의 금리 하향세가 위험자산에 대한 태도가 개선되는 근거로 작용하는 모습이다.

표 1. 연말 연초 코스피 등락률과 외국인순매수

구분	코스피 등락률(%)			외국인순매수(억원)	
	12월	1월 첫 5거래일	1월	12월	1월
1999~2000	3.15	- 3.97	- 8.19	9,511	11,887
2000~2001	- 0.91	7.98	22.45	4,553	27,081
2001~2002	7.74	3.99	7.84	3,451	1,282
2002~2003	- 13.42	2.35	- 5.69	915	3,179
2003~2004	1.82	1.31	4.66	10,628	40,439
2004~2005	2.03	- 2.44	4.11	- 10,082	8,538
2005~2006	6.31	3.25	1.48	- 13,293	21,224
2006~2007	0.16	- 6.19	- 5.17	10,133	593
2007~2008	- 0.47	- 6.90	- 14.36	- 24,664	- 85,255
2008~2009	4.50	7.90	3.35	8,549	7,695
2009~2010	8.17	1.21	- 4.77	22,489	6,201
2010~2011	7.68	3.42	0.91	36,178	3,468
2011~2012	- 1.18	1.69	7.12	- 4,003	62,515
2012~2013	2.55			37,569	
평균	1.97	1.05	1.06	4,182	8,373
상승/순매수 횟수	9	9	8	9	12

주: 코스피 상승과 외국인 순매수 횟수에 2012년은 제외

자료: 증권전산,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주식을 팔고 올해를 넘기기보다
보유한 채로 넘기는 것이 바람직

국내 증시에서 1월 효과는 경험적으로 확인. 주식을 보유한 채로 넘길 것을 권고

2012년도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제 2013년 초반의 증시흐름이 어떨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커질 시기이다. 그에 따라 주식을 팔고 올해를 넘길 것인지 보유한 채로 넘길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엇갈리기 때문이다.

통상 연말 연초에는 이른바 1월 효과의 현실화 여부에 관심이 크다. 그리고 2000년 이후의 외국인 매수세와 주가의 흐름을 보면 1월 효과에 대한 기대감은 현실성이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코스피는 통상적으로 1월
상승세를 기록

1999년 이후 12월 증시는 평균적으로 2%의 상승세를 나타냈고, 1월은 1% 상승했다. 상승횟수는 13차례 중 각각 9회와 8회를 기록하면서 상승을 나타낸 사례가 하락한 사례보다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008년 글로벌 위기가 불거진 시기를 제외하면 1월의 상승률 평균이 12월보다 더 높다.

2000년대 들어 1차례를
제외하고 매년 외국인 매수세
나타나

특히 기대되는 것은 외국인 순매수의 1월 효과이다. 2000년 이후 외국인은 2008년을 제외한 모든 해의 1월에 순매수를 기록했다. 적어도 외국인 순매수에 있어서는 1월 효과가 존재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1월 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는 것이 단지 이례현상이라는 이유로 무시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특히 최근의 외국인 매수세가 중국으로의 글로벌 펀드 자금 유입세에서 알 수 있듯이 단순한 확장적 통화정책의 효과라기보다는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이전보다 높아진 것을 반영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따라서 1월 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볼 때, 최근 나타난 안정적인 지수흐름이 연장될 가능성에 무게를 둔 대응이 바람직해 보이고 매도보다는 보유가 더 낫다고 판단된다.

표 2. 연말 연초 코스피 등락률과 외국인순매수

구분	코스피 등락률(%)			외국인순매수(억원)	
	12월	1월 첫 5거래일	1월	12월	1월
1999~2000	3.15	- 3.97	- 8.19	9,511	11,887
2000~2001	- 0.91	7.98	22.45	4,553	27,081
2001~2002	7.74	3.99	7.84	3,451	1,282
2002~2003	- 13.42	2.35	- 5.69	915	3,179
2003~2004	1.82	1.31	4.66	10,628	40,439
2004~2005	2.03	- 2.44	4.11	- 10,082	8,538
2005~2006	6.31	3.25	1.48	- 13,293	21,224
2006~2007	0.16	- 6.19	- 5.17	10,133	593
2007~2008	- 0.47	- 6.90	- 14.36	- 24,664	- 85,255
2008~2009	4.50	7.90	3.35	8,549	7,695
2009~2010	8.17	1.21	- 4.77	22,489	6,201
2010~2011	7.68	3.42	0.91	36,178	3,468
2011~2012	- 1.18	1.69	7.12	- 4,003	62,515
2012~2013	2.55			37,569	
평균	1.97	1.05	1.06	4,182	8,373
상승/순매수 횟수	9	9	8	9	12

주: 코스피 상승과 외국인 순매수 횟수에 2012년은 제외. 2012년 12월 코스피 등락률과 외국인순매수는 12월 26일 기준

자료: 증권전산,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G2와 유럽 증시의 안정적인 흐름도 1월 효과에 대한 기대감 높아

IT, 화학, 금융 등에 대한 관심 바람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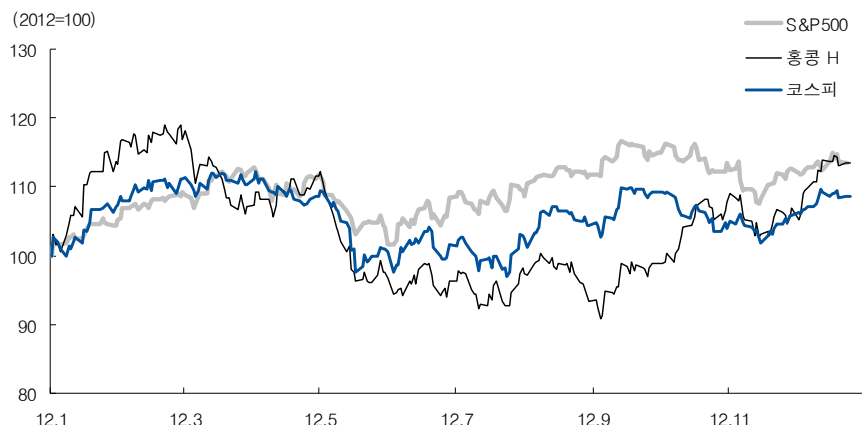
우호적인 글로벌 증시와 대형주의 흐름은 1월 효과를 뒷받침

최근 글로벌 증시 역시 코스피의 안정적인 흐름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다. 중국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상해종합지수와 홍콩 H지수 등이 빠른 회복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미국 증시 역시 재정절벽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결론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유럽 지역의 주가 상승과 더불어 금리도 하향세를 나타내면서 위험자산에 대한 태도가 개선되는 근거로 작용하는 모습이다.

코스피가 1월에 대체로 상승세를 나타냈다는 점을 근거로 보면, 업종 측면에서도 전기전자와 화학, 금융 업종 등 시가총액 상위 대형업종의 부각이 당연해 보인다. 최근 이들 업종의 회복세 역시 과거 나타났던 연말, 연초의 흐름과 부합하는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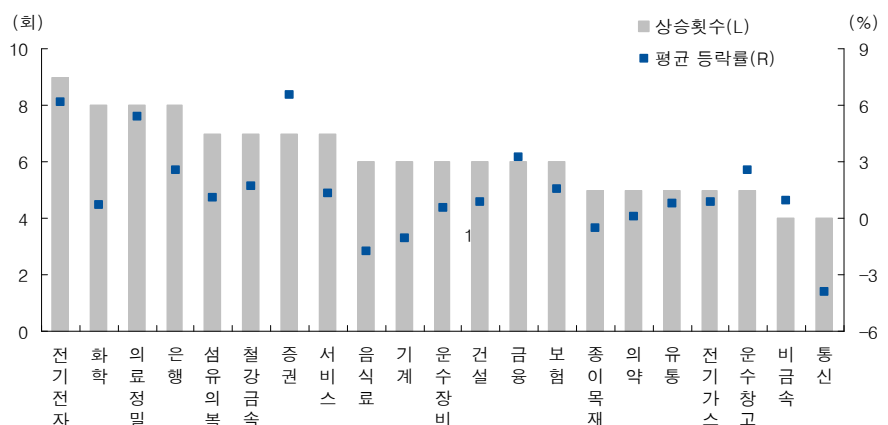
펀더멘털 측면에서도 전기전자는 업종 경쟁력과 함께 미국 등의 소비회복 기대감, 화학 업종 등의 소재 섹터는 중국의 경기회복 기대감, 은행이나 증권 등은 밸류에이션 매력과 유럽 금융시장의 안정 등을 근거로 찾을 수 있다.

그림 1. 코스피 및 S&P500, 홍콩 H 추이



자료: Bloomberg,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 2000년 이후 코스피 업종별 1월 상승횟수 및 평균 등락률



자료: 증권전산,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선물의 눈) 외국인 비차익 PR 순 매수 심상치 않다

수급 측면에서 11월 19일부터 시작된 지수 상승의 메인 드라이버는 외국인 비차익 PR 순 매수. 26일간, +3조 8,639억 원이 집중. 배경은 ① GEM 펀드 자금 순 유입, ② 배당 투자 막차 혹은 ③ 공매도 청산 용도 등으로 추측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만기 이후 비차익 PR 순 매수는 약화. 기중 차익 PR 순 매수 폭증에 따라 비공식 차익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차익 PR 순 매수 급증하지 않은 점, 차장 중 시분할 순 매수에서 증가 집중 순 매수로 패턴이 변하고 있다는 점 등이 근거

GEM 펀드 자금 순 유입 계속되면 비차익 PR 순 매수도 지속. 그러나, 한국 주식의 비중 감소 가능성 있으며, 내년 초부터 벵가드 지수 변경에 따른 순 매도 분할 출회, 배당 투자 막차나 대차잔고 청산 물량은 배당락에 따라 종료돼 강도는 보장 불가

공식+비공식 차익 PR 순 매수에 의해 현물 외국인 순 매도 약화 은폐되었지만, 향후 선물 외국인 순 매도 반전한다면 비로소 순수 바스켓 수요의 약화 드러날 것. 이미 외국인 순수 현물은 순 매도 반전 상태며 때문에 지수 상승 탄력도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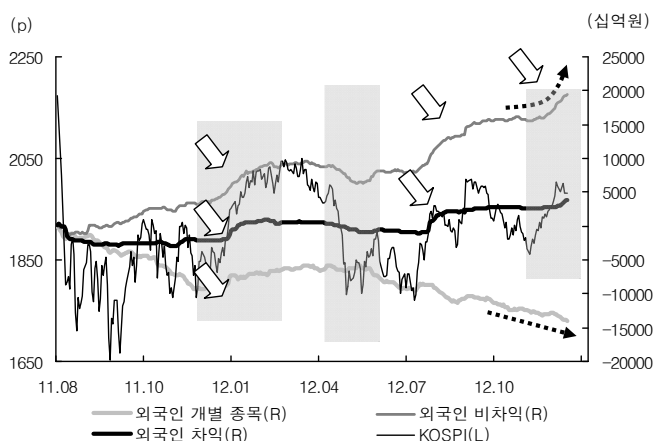
11/19 이후 지수 상승의 메인 드라이버는 +3.9조 원에 달한 외국인 비차익 PR 순 매수

11/19~12/26, 외인 개별 종목
-1.3조 원, 차익 PR +1.3조 원,
비차익 PR +3.9조 원

수급 측면에서 11월 19일부터 시작된 이번 지수 상승 국면의 메인 드라이버는 단순한 '외국인'이 아니라 '외국인의 비차익 PR 순 매수'였다. 26일간, +3조 8,639억 원이 집중되었으며 동 기간 차익 PR은 +1조 3,046억 원, 개별 종목은 -1조 3,447억 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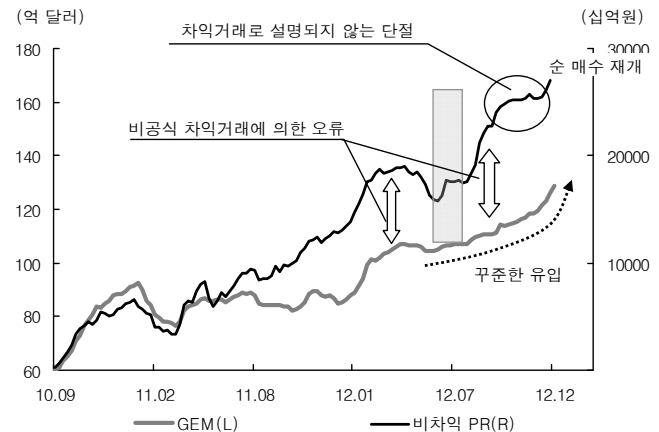
배경은 직전 본 자료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① GEM 펀드의 자금 순 유입, ② 배당 투자 막차(?) 혹은 ③ 공매도 청산 용도 등으로 추정된다. 지난 11월 15일부터 12월 19일 사이 GEM 펀드에 +106.2억 달러의 자금이 집중 순 유입된 점, 과거에도 배당락 직전에 잠시 외국인의 비차익 PR 순 매수가 작렬(?)했던 점 및 동 기간에 대차잔고가 -187백만 주나 급감한 점 등이 근거다<그림 2 참조>.

그림 1. 직전과 달리 외인 비차익 PR 순 매수가 홀로 지수를 상승 견인



주: 일별 순 매수 단순 누적. 개별 종목 = 전체 - PR
자료: KRX, 증권전산,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 비차익 PR 순 매수의 1차 배경은 GEM 자금 집중 순 유입



주: 주간 단위 순 매수 누적과 자금 순 유출/입 누적
자료: KRX, 증권전산,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12월 만기 이후 비차익 순 매수 약화. 힌트는 차익 PR 순 매수 가속+증가 집중 순 매수 빈번

문제는 12월 만기 직후부터 이들의 비차익 PR 순 매수가 약화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물론, 겉으로는 멀쩡(?)해 보인다. 12월 만기 직후부터 현재까지 8일간 유입된 비차익 PR 순 매수는 +2조 157억 원으로 전체 기간 물량의 52%에 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화를 주장하는 근거는 ① 동 기간에 외국인의 차익 PR 순 매수가 폭증했다는 점(전체의 91%), ② 점차 장 중 시분할 매수에서 증가 집중 매수로 패턴이 변하고 있다는 점 등 2가지다.

약화 근거(1): 만기 직후 차익 PR 순 매수 불구, 비차익 PR 순 매수 가속되지 않았던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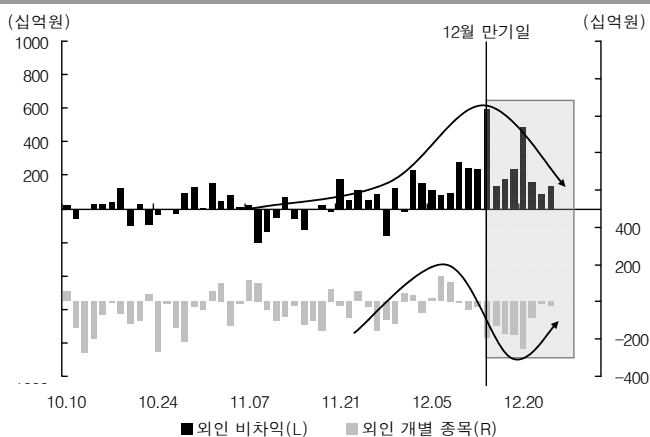
첫째, 외국인의 차익 PR 순 매수는 12월 만기일부터 시작해 8일째 지속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의 차익거래 중 일부는 비차익 PR 주문으로 집행되므로 만일 순수한 바스켓 수요가 여전했다면 비차익 PR 순 매수는 동 기간에 ‘직전 대비 가속’되어야 정상이다.

그러나, 실제로 일별 비차익 PR 순 매수는 12월 만기일에 잠시 가속되었을 뿐이며 이후부터는 오히려 점차 줄어드는 모습이었다. 만일 일별 비공식 차익거래를 공식 차익 PR 순 매수의 94.7%로 가정한다면 만기 직후 8일간 순수 바스켓 수요는 +8,959억 원에 불과하다<그림 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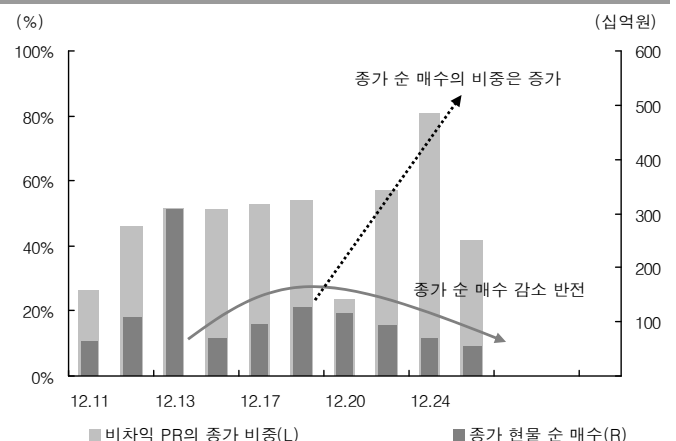
약화 근거(2): 장 중 시분할 순 매수에서 점차 증가 집중 순 매수 빈번해지고 있는 점

둘째, 직전 8일간 이들은 장 중에 +1조 1,955억 원, 증가에 +9,316억 원(43.7%)을 순 매수했는데, 주목할 것은 증가 순 매수의 대부분이 비차익 PR 순 매수였다는 점이다(단, 12월 만기일 증가의 +3,800억 원은 비공식 차익거래). 기간 초기에 비차익 PR 순 매수의 증가 비중은 51%였으나 이후 점차 늘어 24일에는 최고 81%를 기록하기도 했다.

즉, 점차 알고리즘을 통한 장 중 순 매수가 증가 집중 순 매수로 변했던 셈이다. 이는 곧 순수 바스켓 수요는 남아있지만 예전에 비해 여력이 부족하다는 증거다. 만일 매수 수요가 차고 넘쳤다면 증가 매매는 시장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장 중 시분할 매수를 선호했을 것이다<그림 4 참조>.

그림 3. 만기 이후 비차익 PR 순 매수 및 종목 순 매도 동반 약화?

주: 일별 순 매수
자료: KRX, 증권전산,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4. 외국인 증가 현물 순 매수 감소 반면, 비차익 내 비중은 증가

주: 장 중 15분 데이터. 증가 비중은 증가 현물 순 매수/일별 비차익 PR 순 매수
자료: KRX, 증권전산,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향후에도 비차익 PR 순 매수 지속 가능하지만 강도 약화돼 단독 지수 상승 견인은 불가능

그렇다면 외국인의 비차익 PR 순 매수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결론부터 언급한다면, 향후에도 지속될 수는 있지만 여전히 강도는 약할 것으로 전망된다.

GEM 펀드 자금 순 유입 불구,
한국 비중 낮아진 데다, 뱅가드
매물 출회로 강도는 약화

물론 GEM 펀드의 자금 순 유입이 계속된다면 이들의 비차익 PR 순 매수 역시 이어질 것이다. 그러나, 직전에 GEM 펀드의 자금 순 유입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비차익 PR 순 매수가 둔화된 점을 감안하면 한국 주식의 비중이 줄었을 가능성이 있는 데다<그림 2 참조>, 내년 초부터는 뱅가드의 지수 변경에 따른 순 매도 물량이 분할 출회될 것이므로 순 매수 강도는 보장할 수 없다.

또한, 배당 투자 막차 역시 금일이 배당락이므로 종료될 것이며, 대차잔고 청산용 물량 역시 마찬가지다. 만일 이러한 물량이 비차익 PR 순 매수에 포함되었다면 금일부터 이들의 비차익 PR 순 매수는 즉각 약화될 것이다.

외국인 차익 PR 순 매수
약화되면 비로소 비차익 PR 순
매수의 약화 드러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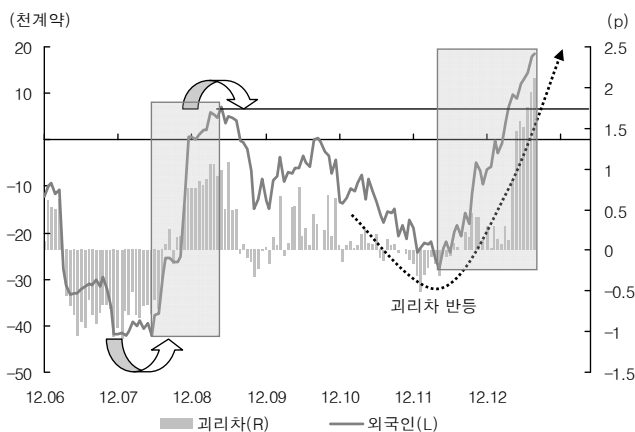
지금까지는 공식+비공식 차익 PR 순 매수에 의해 현물 외국인의 순 매도 약화가 은폐되었지만, 향후 선물 외국인이 순 매도로 돌아서 미친(?) 괴리차가 하락한다면 외국인의 차익 PR 순 매수도 끝날 것이며, 그 때야 비로소 순수 바스켓 수요의 약화가 드러날 것이다<그림 5 참조>.

만기일 직후부터 지수 상승 탄력 둔화된 원인은 외국인 순수 현물의 순 매도 반전 때문

개별 종목+순수 바스켓(추정)만
감안한 때 현물 외국인은 이미
순 매도 반전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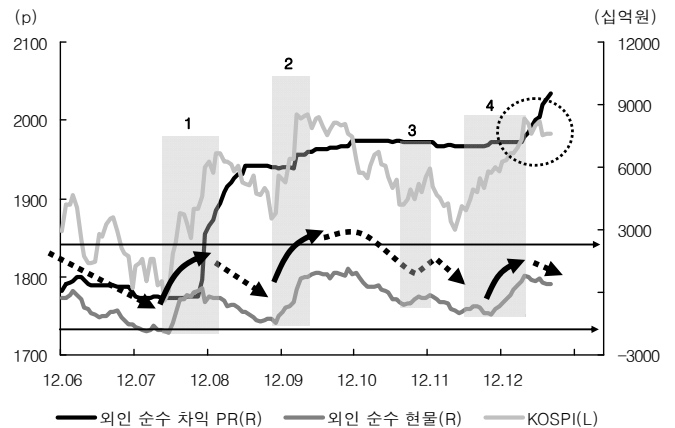
기억하는가? 12월 만기일부터 외국인의 차익 PR 순 매수가 가세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더 이상 상승하지 않고 있다. 이는 우리가 추정한 순수 현물 순 매수(=개별 종목 순 매매+순수 바스켓 순 매매)의 추이와 일치한다. 즉, 차익거래를 제외한 실제 현물 외국인은 이미 순 매도로 돌아섰다는 뜻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개별 종목 순 매도가 약화된 점뿐이다<그림 6 참조>.

그림 5. 외인 선물 순 매수 → 괴리차 급등 → 외인 차익 순 매수 은폐



주: 괴리차는 장 중 1분 데이터 단순 평균. 외국인은 차익 제외한 투기/헤지 기준
자료: KRX, 증권전산,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6. 외인 순수 현물, 만기 직후 순 매도 → 지수 상승 탄력 둔화



주: 순수 현물 = 개별 종목 + 순수 바스켓(=비차익 PR - 차익 PR X 0.947)
자료: KRX, 증권전산,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철강금속 전승훈 02-768-2713 sh.jeon@dwsec.com

철강금속 이준기 02-768-3297 aiden.lee@dwsec.com

철강금속

추가 상승시 매도인가 조정시 추가 매수인가?

철강 업종에 대한 다섯 가지 질문과 우리의 생각

1) 중국 철강 가격 추가 상승 가능한가? “Y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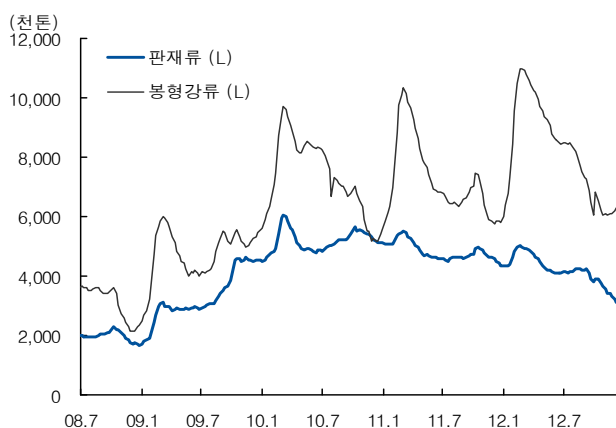
유통 업체들의 재고 축적 없이도 중국 철강 가격은 강한 모습이다. 현재 중국 철강 판매 유통 재고량은 2009년 수준까지 감소했다. **재고 축적 없이도 가격이 강하다면 연초에 재고 축적이 시작되면 가격이 더욱 강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철강 업체들의 마진 확대로 철강 생산량은 증가하고 있다. 11월과 12월은 계절적 비수기다. **계절적으로 수요가 약한 시기에 철강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강 가격이 강하다는 것은 실수요가 개선되고 있음을 방증하는 시그널**이다.

2) 일본의 수출 가격 인상 시사점은? “엔 약세의 영향에 대한 우려는 과도하다는 의미”

일본의 4분기 한국향 열연 수출 가격이 9월보다 높은 수준으로 타결되고 있다. 1분기 가격도 인상할 계획이다. **엔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철강 수출 가격을 인상**한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일본산 4분기 수입 가격은 FOB 기준 600달러 수준이며 중국산 2013년 1월 수입 가격이 570~580달러(CFR)로 상승해 일본산 가격의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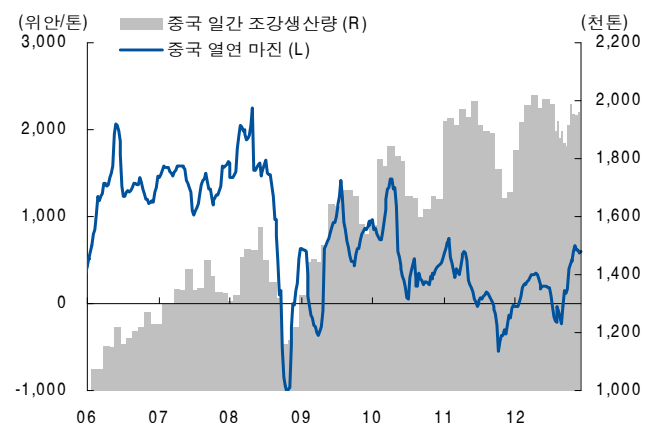
국내산 철강 가격의 하락으로 이미 Lead time등을 고려할 경우 수입산의 가격 경쟁력은 없어졌다. 즉 수입산 가격 상승이 국내산 가격 상승으로 직결될 수 있는 구조다. POSCO도 유통향 열연 공급 가격을 톤당 2만원 인상했다.

그림 1. 중국의 철강 유통 재고량 추이



자료: Mysteel,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 중국 열연 평균 마진과 일간 조강생산량 추이



자료: Mysteel,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추정

-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회사와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인함.
- 대우 Daily의 산업분석 보고서는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문으로 컴플라이언스 관련 고지사항을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중국 철강 유통 업체들의 De-financialization 어떻게 봐야 하나?

중국에는 철강 유통 업체들의 철강재 De-financialization이 이슈다. 이것이 수요 약화의 한 원인이기 때문이다. 2008년 글로벌 위기 이후 중국 유통사들은 철강재 구매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고리대금업 등을 행하여 왔다. 그러나 지속적인 철강 가격 하락, 긴축 정책, 정부의 고리대금업 규제 등의 영향으로 은행 대출 상환을 위해 담보로 잡아둔 철강 제품들을 지속적으로 팔고 있다. 이것이 중국 판재류 유통 재고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한 이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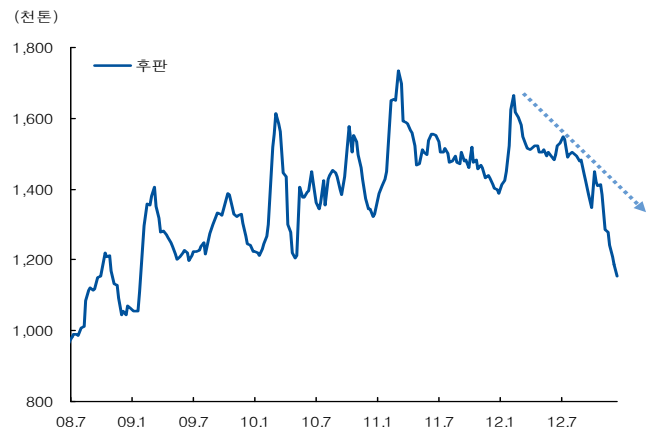
중국은 철강 생산 제품의 70%가 유통 업체들을 거쳐 수요가들에게 공급된다. 따라서 **유통 업체들의 De-financialization 이 마무리되고 나면 수요가 개선되는 듯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아무도 자신이 고리대금업용 자금 상환을 위해 재고를 줄이고 있다고 고백할 사람도 없다. 이것이 중국에서 이와 관련된 뉴스가 크게 나오지 않는 이유다. 따라서 이 효과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림 3. 중국의 열연 강판 유통 재고량 추이



자료: Mysteel,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4. 중국의 후판 유통 재고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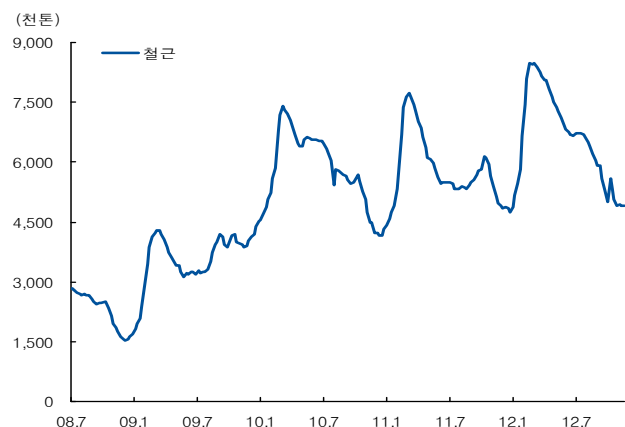
자료: Mysteel,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5. 중국의 냉연 강판 유통 재고량 추이



자료: Mysteel,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6. 중국의 철근 유통 재고량 추이



자료: Mysteel,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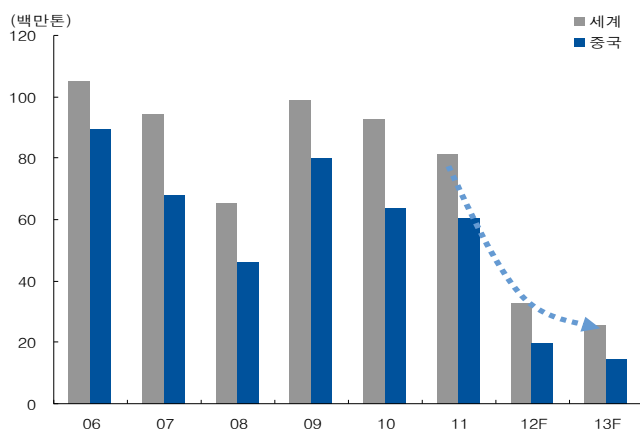
4) 철강 산업은 여전히 공급이 이슈인가? “No”

여전히 투자자들은 공급 과잉 문제를 근거로 철강주 투자를 피하고 있다. 그러나 당사는 2012년부터 이미 철강 산업은 공급보다는 수요가 문제의 핵심으로 전환되었다고 판단한다. 실제로 세계 조강 생산능력 증가율은 2012년부터 1%대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세계 철강 수요가 2%만 성장해도 공급 과잉 정도는 축소된다는 의미다.

구조조정이 필요한 중국의 경우 매년 설비 능력 감축 목표치가 달성되고 있다. 철강산업의 양적 구조조정에 있어 증설 억제가 설비 폐쇄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현재 증설 축소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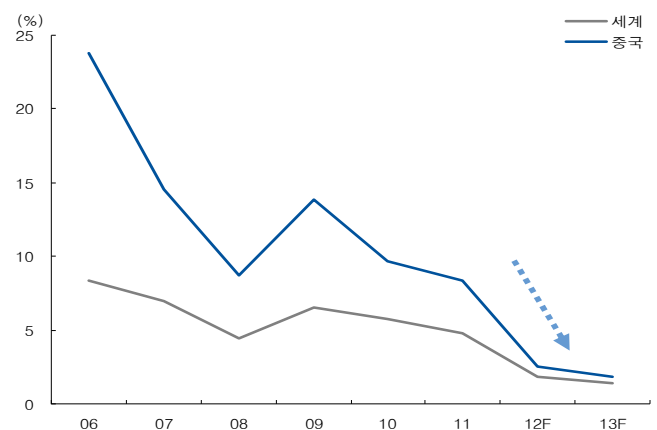
2013년에 철강 업체들의 이익이 개선되어 또다시 투자를 늘리게 되면 2016년부터 생산 능력 증가 속도가 빨라지게 된다. 따라서 최소한 2015년까지는 공급 보다는 수요의 이슈가 철강 업계 이익 및 주가를 결정할 전망이다.

그림 7. 세계 및 중국의 연간 조강 생산능력 증가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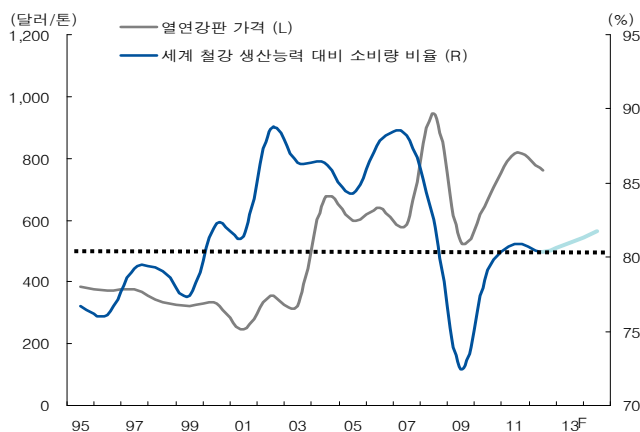
자료: 각 산업 자료 종합,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추정

그림 8. 세계 및 중국의 연간 조강 생산능력 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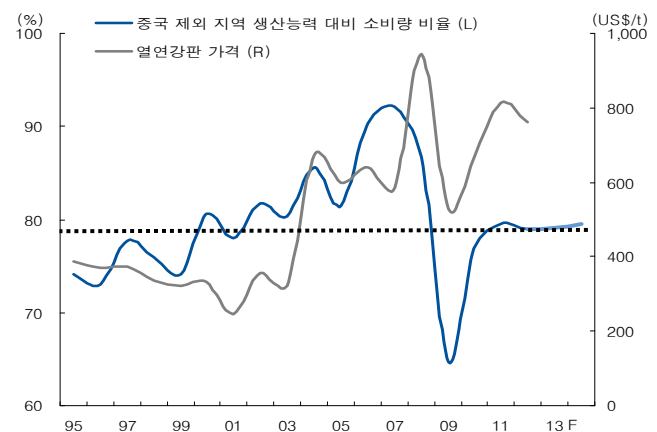
자료: 각 산업 자료 종합,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추정

그림 9. 세계 조강 생산능력 대비 소비량 비율과 철강 가격



자료: CRU, 각 산업 자료 종합,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추정

그림 10. 중국 외 조강 생산능력 대비 소비량 비율과 철강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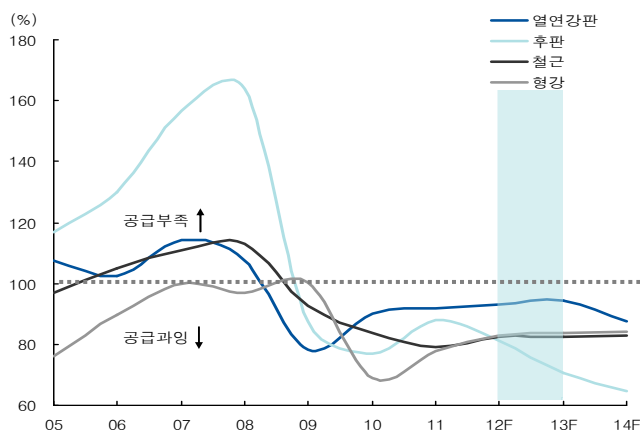
자료: CRU, 각 산업 자료 종합,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추정

5) 한국 철강 산업 자체적인 수급이 한국 철강주 주가의 발목을 잡을 것인가? “No”

한국 철강 업체들의 주가 상승에 남아 있는 걸림돌은 한국 철강 산업 자체적인 수급 문제다. 그러나 <그림 11, 12>와 같이 품목별 전망을 보면 **2013년까지는 후판을 제외한 품목들은 공급 과잉 정도가 확대되지 않을**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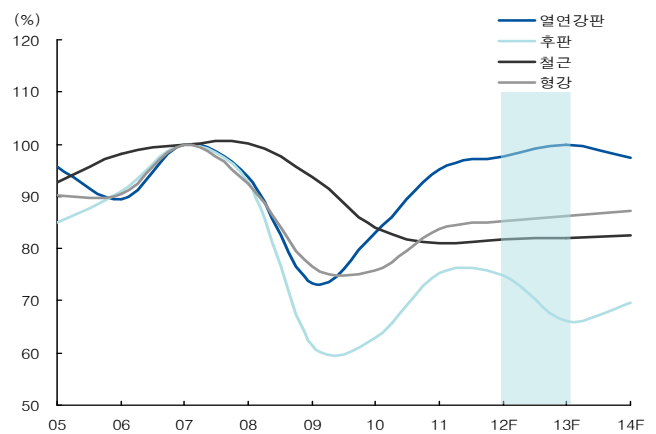
따라서 후판 비중이 높은 업체들만 피한다면 한국 고유의 문제로 글로벌 철강 업체들의 주가 상승에서 소외될 가능성은 낮다. 당사는 국내 수급 상황을 기준으로 볼 때 2013년에는 열연>형강>철근>냉연>후판의 순으로 시황이 좋을 것으로 판단한다.

그림 11. 국내 품목별 생산능력 대비 내수 소비량 비율 전망



자료: POSRI, 한국철강협회,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추정

그림 12. 국내 품목별 가동률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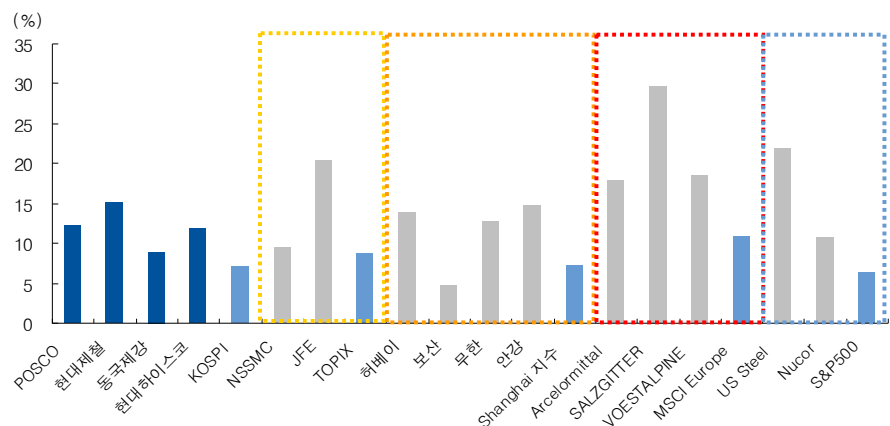


자료: POSRI, 한국철강협회,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추정

Top picks는 POSCO와 현대제철; 여전히 주가 조정이 온다면 추가 매수가 유리한 국면
최근 한 달간 국내 주요 철강 종목이 모두 KOSPI 대비 높은 주가 상승률을 보였다. 동기간 글로벌 주요 철강 주식들의 주가 상승률도 높았다. 당사는 지난 12월 7일 보고서를 통해 계절적 비수기에 중국의 철강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철강 가격 하락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중국의 실수요 회복 가능성을 제시한 바 있다. 실제로 그 후 발표된 중국의 12월 HSBC PMI 지수 잠정치는 50.9로 중국 제조업 경기가 개선되고 있음을 증명해 주었다.

당사는 여전히 주가의 추가 상승 여력이 높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반등시 매도 보다는 조정시 추가 매수하는 전략을 추천한다. 또한 종목으로는 현재와 같은 모습의 시황 개선의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되는 고로 업체들을 추천한다. POSCO(005490/TP 460,000원)와 현대제철(004020/TP 110,000원)에 지속적으로 긍정적 관심이 필요하다.

그림 13. 최근 1개월 글로벌 주요 철강 업체들의 주가 상승률과 각국 주식시장 지수 상승률 비교



자료: Thomson Reuters,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표 1. POSCO의 수익예상과 투자지표

결산기	매출액	영업이익	영업이익률	순이익	EPS	EBITDA	FCF	ROE	P/E	P/B	EV/EBITDA
	(십억원)	(십억원)	(%)	(십억원)	(원)	(십억원)	(십억원)	(%)	(배)	(배)	(배)
12/10	32,582	4,785	14.7	3,784	43,405	7,504	-1,210	11.3	11.2	1.1	6.5
12/11	39,172	4,196	10.7	3,189	36,575	6,104	-357	8.7	10.4	0.8	7.0
12/12F	35,735	2,849	8.0	2,508	28,765	4,819	4,337	6.5	12.2	0.7	7.7
12/13F	33,460	4,084	12.2	3,275	37,558	6,130	1,488	8.1	9.3	0.7	6.0
12/14F	35,644	4,253	11.9	3,383	38,798	6,499	1,558	7.8	9.0	0.7	5.5

자료: POSCO,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IFRS 별도 기준)

표 2. 현대제철의 수익예상과 투자지표

결산기	매출액	영업이익	영업이익률	순이익	EPS	EBITDA	FCF	ROE	P/E	P/B	EV/EBITDA
	(십억원)	(십억원)	(%)	(십억원)	(원)	(십억원)	(십억원)	(%)	(배)	(배)	(배)
12/10	10,236	1,059	10.4	922	10,812	1,459	-3,014	12.3	11.5	1.3	12.4
12/11	15,260	1,304	8.6	747	8,758	1,977	-835	8.5	10.9	0.9	8.6
12/12F	14,243	905	6.4	750	8,787	1,613	64	7.9	9.9	0.8	10.2
12/13F	14,547	1,229	8.4	830	9,733	1,933	118	8.2	8.9	0.7	8.6
12/14F	16,587	1,541	9.3	997	11,688	2,384	907	9.1	7.4	0.7	6.7

자료: 현대제철,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IFRS 연결 기준)

KOSPI 기관 및 외국인 순매매 상/하위 업종 및 종목

(단위: 억원)

국내기관 (업종)			기관전체 (당일 2528.8 / 5일 271.9)			외국인 (업종)			외국인전체 (당일 2393.1 / 5일 13092.2)		
순매매 상위	금액	5일	순매매 하위	금액	5일	순매매 상위	금액	5일	순매매 하위	금액	5일
전기전자	608.6	-1,922.2	서비스업	-124.1	-1,150.9	전기전자	796.4	1,212.9	은행	-22.5	89.1
운수장비	509.7	-849.1	종이목재	-7.9	-2.8	서비스업	356.3	2,185.9	섬유의복	-15.4	81.9
화학	252.1	146.0	의료정밀	-2.7	0.2	운수장비	315.2	1,511.2	의료정밀	-9.4	-13.3
금융업	240.2	1,186.1	비금속	8.6	15.5	화학	237.7	2,832.6	보험업	-0.8	675.1
통신업	225.5	1,241.6	은행	13.2	-34.4	금융업	221.0	2,199.5	비금속	8.1	6.2
국내기관 (종목)						외국인 (종목)					
순매수	금액	5일	순매도	금액	5일	순매수	금액	5일	순매도	금액	5일
삼성전자	508.3	-113.8	두산	-170.0	-741.6	삼성전자	527.7	-369.2	KODEX 200	-92.2	1,344.6
KODEX레버리지	336.3	252.7	KODEX 인버스	-137.2	101.6	SK하이닉스	154.9	287.0	엔씨소프트	-69.4	-88.6
현대차	196.5	403.3	LG전자	-77.7	-280.8	기아차	118.9	161.9	KODEX레버리지	-60.2	0.3
한국전력	118.8	582.9	GS	-54.2	-39.7	현대모비스	95.5	363.2	삼성화재	-40.9	-9.9
KT	116.1	675.4	KB금융	-46.9	-159.7	롯데쇼핑	78.0	144.9	만도	-40.7	-91.9
현대모비스	112.6	-174.4	SK케미칼	-36.0	-13.5	LG	75.5	303.0	OCI	-32.2	111.6
POSCO	109.3	660.4	GKL	-35.1	-85.1	삼성엔지니어링	69.3	269.7	LS산전	-28.0	15.8
신한지주	98.3	676.9	KINDEX200	-33.7	-3.0	GKL	63.1	100.9	KT&G	-23.3	-71.9
LG디스플레이	79.8	-250.6	LG	-28.7	-147.1	LG화학	62.3	1,242.2	LG생활건강	-18.1	50.1
KODEX 200	73.5	-1,461.9	SBS미디어홀딩스	-27.3	-90.9	KB금융	59.6	456.7	LG패션	-16.6	61.5

KOSDAQ 기관 및 외국인 순매매 상/하위 업종 및 종목

(단위: 억원)

국내기관 (업종)			기관전체 (당일 273.2 / 5일 -308.0)			외국인 (업종)			외국인전체 (당일 -145.3 / 5일 97.1)		
순매매 상위	금액	5일	순매매 하위	금액	5일	순매매 상위	금액	5일	순매매 하위	금액	5일
소프트웨어	140.6	-50.2	IT부품	-50.3	-239.6	제약	12.7	205.8	IT부품	-37.0	17.9
제약	68.9	123.3	인터넷	-14.6	8.5	기계.장비	7.3	-14.4	디지털컨텐츠	-34.0	-73.9
오락.문화	57.2	-62.1	출판.매체복제	-11.4	-15.4	인터넷	1.6	-15.6	오락.문화	-24.3	16.1
디지털컨텐츠	42.8	-137.4	반도체	-11.1	-167.2	유통	1.0	16.4	소프트웨어	-21.3	69.1
화학	26.3	-116.9	방송서비스	-7.9	49.3	기타제조	0.8	1.5	반도체	-15.2	-13.3
국내기관 (종목)						외국인 (종목)					
순매수	금액	5일	순매도	금액	5일	순매수	금액	5일	순매도	금액	5일
한글과컴퓨터	142.7	-10.5	아바텍	-26.7	-25.8	씨젠	9.6	23.7	에스엠	-21.9	-17.7
셀트리온	45.6	28.4	인터플렉스	-20.7	-126.4	파라다이스	8.7	59.9	컴투스	-17.7	17.0
에스엠	33.9	-40.6	서울반도체	-15.8	-30.1	EG	7.6	-29.5	위메이드	-11.1	-48.0
컴투스	25.3	5.5	다음	-13.8	10.3	크로바하이텍	7.1	6.0	매일유업	-8.4	-23.6
SK브로드밴드	20.6	11.5	CJ오쇼핑	-12.8	76.9	에스에프에이	7.0	24.1	KG모빌리언스	-8.2	8.8
와이즈엔터테인먼트	15.0	18.3	로엔	-11.3	-15.7	게임빌	4.2	-40.4	오스템임플란트	-7.3	0.2
코오롱생명과학	13.8	24.6	실리콘웍스	-10.4	-59.2	세코닉스	4.0	-2.4	플렉스컴	-7.1	33.9
포스코엡텍	11.6	34.0	인터파크	-7.2	-18.9	셀트리온	3.4	176.7	인터플렉스	-7.0	-66.6
이엘케이	10.7	17.7	네이블	-5.9	0.3	다음	3.4	-16.4	와이즈엔터테인먼트	-6.7	-5.9
파라다이스	10.6	-41.1	에스맥	-5.8	3.6	대화제약	3.3	-0.1	KG이니시스	-5.8	12.6

※ 본 자료 중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이며, 그 밖의 외국인은 제외되어 있음

※ 5일: 증권전산 CHECK 기준 (당일 제외, 이전 최근 5일), 당일 금액과 5일에서 (-)는 순매도를 의미

KOSPI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종목

(단위: 백만원)

투신				연기금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KT	13,808.1	KODEX 200	-56,626.4	현대모비스	7,162.2	KT	-17,484.0
한국전력	6,194.2	삼성전자	-21,963.6	SK하이닉스	5,411.7	SK텔레콤	-12,364.6
현대위아	6,047.2	LG전자	-7,830.3	한국전력	5,216.0	LG전자	-6,241.4
SK텔레콤	5,986.8	두산	-7,200.2	호남석유	4,927.2	맥쿼리인프라	-5,100.0
맥쿼리인프라	5,507.1	LG화학	-6,859.1	LG생활건강	4,580.6	KT&G	-4,380.9
현대차	4,297.9	TIGER 200	-6,404.5	현대제철	4,387.3	GS	-3,363.1
삼성중공업	2,970.6	SK하이닉스	-6,272.3	SK이노베이션	3,973.3	SK C&C	-3,262.5
현대글로벌비스	2,922.7	NHN	-5,538.9	만도	3,953.7	농심	-3,180.2
LG유플러스	2,765.2	KB금융	-5,267.3	삼성전기	3,758.5	현대위아	-2,833.5
POSCO	2,757.8	LG	-4,850.5	현대차	3,567.5	GKL	-2,651.6
은행				보험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KT	2,685.4	TIGER 유동자금	-9,550.8	삼성전자	25,480.2	두산	-6,922.4
LG전자	1,111.7	POSCO	-3,800.5	SK텔레콤	8,812.3	TIGER 레버리지	-6,353.9
SK텔레콤	1,019.5	KODEX 레버리지	-2,820.7	KODEX 200	7,749.4	LG생활건강	-1,726.4
KODEX 인버스	751.4	SK하이닉스	-2,440.4	LG디스플레이	5,343.9	LG상사	-1,575.3
유한양행	695.5	삼성전자	-2,418.0	현대차	5,176.0	하나금융지주	-1,504.6
삼성정밀화학	286.3	호남석유	-1,765.5	POSCO	4,108.2	우리투자증권	-1,321.1
농심	267.6	KB금융	-1,359.8	KT	3,441.8	NHN	-1,152.7
한라공조	261.0	CJ	-1,273.3	LG패션	3,216.5	BS금융지주	-1,058.8
현대그린푸드	245.6	LG화학	-1,048.9	현대모비스	3,151.0	두산인프라코어	-1,030.0
일진디스플레이	233.1	TIGER 200	-1,037.6	대림산업	2,994.8	마이다스 커버드콜	-1,024.6

KOSPI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수/매도 상위 종목

(단위: 백만원)

순매수			순매도		
종목	외국인	기관	종목	외국인	기관
삼성전자	52,766.3	50,828.9	LS산전	2,798.1	2,226.4
현대차	2,886.5	19,652.9	아이마켓코리아	114.8	1,873.5
KT	5,908.3	11,608.5	엔씨소프트	6,935.5	1,029.0
현대모비스	9,550.3	11,263.3	현대상사	64.0	928.7
신한지주	2,283.9	9,825.1	KINDEX 중국본토CSI300	76.9	620.0
LG디스플레이	2,774.8	7,979.1	이수페타시스	68.0	579.9
SK이노베이션	3,600.5	6,605.5	삼성카드	21.2	493.6
삼성전기	2,213.8	5,501.4	현대해상	231.7	439.1
현대중공업	5,503.1	3,215.3	농심	251.7	237.3
기아차	11,892.1	93.5	SG세계물산	437.6	47.0

*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이며, 그 밖의 외국인은 제외되어 있음

*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도 금액은 (-)를 생략한 수치임

KOSDAQ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종목

(단위: 백만원)

투신				연기금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한글과컴퓨터	8,946.9	CJ오쇼핑	-2,019.2	한글과컴퓨터	5,064.1	로엔	-950.5
SK브로드밴드	1,621.1	서울반도체	-1,288.5	에스엠	2,045.9	다음	-647.9
에스엠	1,085.4	아바텍	-797.0	와이지엔터테인먼트	926.6	심텍	-605.3
파라다이스	1,064.7	인터플렉스	-780.4	휴비츠	804.9	로만손	-591.2
디엔에프	899.3	에스맥	-452.6	CJ오쇼핑	678.5	제닉	-443.3
코오롱생명과학	805.1	에스에프에이	-366.3	셀트리온	669.7	인터플렉스	-264.7
위메이드	721.5	평화정공	-361.1	게임빌	606.4	씨젠	-233.6
와이지엔터테인먼트	612.0	인터파크	-321.8	GS홈쇼핑	522.5	고영	-174.7
매일유업	514.9	휴비츠	-320.1	포스코 ICT	365.5	동국산업	-166.5
솔브레인	479.1	태광	-308.1	컴투스	304.9	웰크론한텍	-158.5
은행				보험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아나패스	257.2	잉크테크	-528.2	한글과컴퓨터	1,821.4	다음	-821.1
디엔에프	220.4	네이블	-435.0	컴투스	1,457.0	웰크론한텍	-741.4
아이엠	147.3	마크로젠	-405.4	셀트리온	1,271.6	씨젠	-627.2
KG이니시스	145.2	뷰웍스	-392.9	포스코엠텍	836.7	아이씨디	-437.4
이트레이드증권	131.7	인터파크	-358.7	이엘케이	700.6	네패스	-355.6
게임빌	112.4	GS홈쇼핑	-219.4	덕산하이메탈	688.2	SBS콘텐츠허브	-346.8
휴비츠	101.6	일지테크	-217.4	CJ오쇼핑	687.8	파라다이스	-300.7
슈프리마	100.8	실리콘웍스	-213.8	심텍	373.4	실리콘웍스	-291.1
EG	49.9	셀트리온	-161.8	제닉	311.6	에스엠	-284.1
서희건설	49.4	씨젠	-147.0	서부T&D	260.8	휴비츠	-187.6

KOSDAQ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수/매도 상위 종목

(단위: 백만원)

순매수			순매도		
종목	외국인	기관	종목	외국인	기관
셀트리온	342.0	4,564.2	아바텍	55.0	2,673.5
SK브로드밴드	124.1	2,059.8	인터플렉스	703.7	2,071.5
파라다이스	871.8	1,059.9	서울반도체	416.5	1,584.9
디엔에프	95.2	1,013.6	CJ오쇼핑	140.2	1,280.3
게임빌	415.3	997.8	로엔	92.9	1,131.5
메디톡스	17.3	494.1	웰크론한텍	128.8	527.1
모두투어	16.4	402.1	심텍	488.0	443.8
에스에프에이	697.7	362.1	오스템임플란트	729.8	432.1
유진테크	158.9	289.7	골프존	418.7	380.0
EG	762.4	49.9	KG이니시스	581.7	270.5

*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이며, 그 밖의 외국인은 제외되어 있음

*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도 금액은 (-)를 생략한 수치임

당일 선물 시장은 새벽 미 증시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되는 '선물옵션 모닝브리프'를 참조할 것
KDB대우증권 홈페이지(www.kdbdw.com)>투자정보>투자전략>AI/파생

주가지수선물 가격 정보

	KOSPI200	1303	1306	1309	KSPH3H6S
기 준 가 격	262.11	263.65	264.90	267.05	1.55
시 가	263.61	264.70	265.95	267.05	1.60
고 가	264.91	265.95	267.50	267.05	1.60
저 가	261.94	263.10	264.80	267.05	1.55
종 가	261.97	263.60	264.80	267.05	1.55
전 일 대 비	-0.14	-0.05	-0.10	-	-
이 른 가 격	-	261.00	262.64	264.38	1.64
총 약 정 수 량 *	69,687	108,735	34	-	15
총 약 정 금 액 **	2,762,642	14,397,371	4,527	-	3,972
미 결 제 약 정	-	110718 (1003)	1331 (1)	16 (1)	-
배 당 지 수 ***	2.89% (CD금리)	2.61	2.86	3.01	-
반 응 배 수		0.96	0.91	-	
장 중 평 균 베 이 시 스		1.146			
전 일 대 비		0.123			

주 : 단위 (* 천주, 계약 ** 백만 *** 포인트)

반응배수 = 일중 선물가격변동폭/일중 현물가격변동폭, KSPH3H6S : 3월물과 6월물과의 스프레드를 의미함
장중 평균 베이스는 1분 평균이며, 만기일일의 경우 전일대비는 직전 최근월물과의 비교이므로 의미없음

주가지수선물 투자자별 매매현황

		외국인	개인	증권	보험	투신	은행	기타법인	연기금
	매 수	34,182	38,419	31,093	95	1,424	584	1,718	1,247
	매 도	34,593	36,328	32,391	599	1,904	416	1,417	1,114
	비 중	31.6%	34.4%	29.2%	0.3%	1.5%	0.5%	1.4%	1.1%
순 매 수 누 적	전 일	-411	2,091	-1,298	-504	-480	168	301	133
	누 적	3,534	4,308	-2,440	-823	-4,742	443	-45	-237
매 매 편 향 강 도		-0.60%	2.80%	-2.04%	-72.62%	-14.42%	16.80%	9.60%	5.63%

주 : 누적은 지난 트리플위칭데이 이후부터 현시점까지 당일 순매수 미결제약정의 증감을 누적한 것임

매매편향강도(%)=(순매수/(매수+매도))X100, 절대수치가 클수록 단방향으로의 집중력이 높다는 의미임

ETF 가격정보

	전일대비	등락율	거래량	거래대금	외국인보유		KOSEF	KODEX200
KOSEF	55	0.21%	226	5,976	0.00%	NAV (ETF-NAV)%	26,249	26,276
KODEX200	25	0.09%	6,644	176,122	19.13%		0.21%	0.26%
	KOSEF	KODEX200	합성현물	최근월물	합성선물	T/E	0.01%	0.02%
증가/100	263.05	263.45	262.09	263.60	262.40	설정주수	0	2500
eff.delta	-3.93	-1.79	0.42	0.36	0.72	환매주수	550	700
diff/basis	0.41%	0.56%	0.05%	1.63	0.43	상장주수	9700	171700

주 1 : effective delta(유효델타) = ETF등 전일대비 증감분/KOSPI200 전일대비 증감분

2 : 합성현물 = (C-P)+X exp[-rt], 합성선물 = (C-P)exp[rt]+X, 거래량, 설정-환매-상장 등의 단위는 천주

3 : 괴리/베이스스 - KOSPI200 대비 괴리율/베이스스, 거래대금의 단위는 백만원

4 : TE(tracking error)=[(NAV/(KOSPI200X100))-1]X100(%)

주가지수옵션 가격정보

대표 내재변동성	0.14	콜평균	0.17	풋평균	0.103	역사적 (5일)	9.8	역사적 (20일)	10.5
월물 행사가격		1301					1302		
		267.5	265.0	262.5	260.0	257.5	265.0	262.5	260.0
Call	가격	1.10	1.91	3.10	4.65	6.25	4.75	6.05	7.60
	전일 대비	-0.13	-0.15	-0.15	-0.10	-0.35	-0.15	-0.10	0.05
	내재변동성	17.20	18.30	20.00	22.10	23.50	17.40	18.10	19.10
	거래량	106,874	94,179	12,478	4,624	1,213	739	176	6
	미결제	22,500	28,610	13,225	10,867	3,817	890	506	716
Put	가격	6.20	4.50	3.20	2.21	1.40	6.85	5.60	4.55
	전일 대비	-0.05	-0.10	-0.05	-0.07	-0.13	-0.20	-0.20	-0.10
	내재변동성	< 3.0	< 3.0	6.30	9.50	10.80	10.70	11.60	12.30
	거래량	2,753	10,663	59,708	80,400	88,607	179	306	250
	미결제	2,858	7,802	11,005	17,991	17,978	304	476	851

주 : 역사적 변동성, 내재변동성 등은 CHECK II 단말기를 기준으로 한 것임

주가지수옵션 투자자별 매매현황

Call		외국인	개인	증권	보험	투신	은행	기타법인	연기금
	매수	286,908	230,538	209,152	852	1,058	29	2,101	20
	매도	286,601	223,556	215,290	1,052	1,058	344	2,732	26
	비중	39.2%	31.1%	29.0%	0.1%	0.1%	0.0%	0.3%	0.0%
순매수 누적	전일	307	6,982	-6,138	-200	0	-315	-631	-6
	누적	-920	21,329	-15,381	-305	-1,265	-360	-3,028	-76
Put		외국인	개인	증권	보험	투신	은행	기타법인	연기금
	매수	311,539	196,493	135,029	1,025	154	46	42	2,797
	매도	307,821	198,374	137,535	825	154	34	51	2,331
	비중	47.9%	30.5%	21.1%	0.1%	0.0%	0.0%	0.0%	0.4%
순매수 누적	전일	3,718	-1,881	-2,506	200	0	12	-9	466
	누적	43,285	-26,485	-13,885	200	394	205	-139	-3,575

주 : 누적은 직전 옵션만기일 이후부터 당일 순매수 미결제약정 증감을 누적한 것임.

차익거래 잔고와 프로그램 매매 동향

		주식		주가지수선물		주가지수 CALL옵션		주가지수 PUT옵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차익거래 잔고 (백만원)	최근월물	5,769,110	11,423,503	11,485,093	5,767,232	-	-	-	-
	기타	-	-	-	-	-	-	-	-
	합계	5,769,110	11,423,503	11,485,093	5,767,232	0	0	0	0
		프로그램 매도				프로그램 매수			
		주식 거래량		주식 거래대금		주식 거래량		주식 거래대금	
		수량	비율(%)	금액	비율(%)	수량	비율(%)	금액	비율(%)
프로그램 매매 동향 (백만원)	차익	529	0.13	33,953	0.98	6,313	1.50	404,421	11.64
	비차익	12,972	3.09	403,089	11.61	18,272	4.35	582,822	16.78
	합계	13,502	3.22	437,042	12.58	24,586	5.85	987,243	28.42
베이스시스수준		1.425	1.325	1.225	1.125	1.025	0.925	0.825	0.725
차익성 순매수		1688	10062	121311	122297	70700	20424	-2441	-926

주 : 월요일을 제외한 차익거래 잔고는 1일 지연된 데이터임.

유가증권시장			12/26 (수)	12/24 (월)	12/21 (금)	12/20 (목)	12/18 (화)	
가격 및 거래량 지표	코스피지수		1,982.25	1,981.82	1,980.42	1,999.50	1,993.09	
	이동평균	5일	1,987.42	1,987.58	1,990.22	1,994.69	1,989.88	
		20일	1,962.52	1,958.84	1,955.31	1,951.27	1,945.49	
		60일	1,937.18	1,937.28	1,937.26	1,937.44	1,937.51	
	이격도	20일	101.01	101.17	101.28	102.47	102.45	
		60일	102.33	102.30	102.23	103.20	102.87	
	거래량		457,994	348,173	553,671	421,933	454,272	
	거래대금		36,187.1	32,456.2	53,621.8	55,370.2	46,421.4	
시장지표	거래량 회전율		1.28	0.98	1.55	1.18	1.28	
	거래대금 회전율		0.32	0.28	0.47	0.48	0.40	
	심리지표		70	70	60	70	70	
	ADR		96.16	96.30	97.35	98.11	96.06	
	이동평균		20일	90.60	89.90	89.15	88.26	86.77
	VR			199.72	166.66	175.62	195.86	209.22
코스닥시장			12/26 (수)	12/24 (월)	12/21 (금)	12/20 (목)	12/18 (화)	
가격 및 거래량 지표	코스닥지수		482.76	483.76	478.06	479.21	483.19	
	이동평균	5일	481.40	481.94	483.52	485.94	487.16	
		20일	489.52	490.19	490.95	491.90	492.55	
		60일	506.98	507.58	508.19	508.94	509.82	
	이격도	20일	98.62	98.69	97.37	97.42	98.10	
		60일	95.22	95.31	94.07	94.16	94.78	
	거래량		327,756	297,319	333,417	342,515	325,265	
	거래대금		14,844.6	14,843.4	15,179.0	15,106.2	14,778.7	
시장지표	거래량 회전율		1.60	1.42	1.58	1.63	1.54	
	거래대금 회전율		1.39	1.39	1.44	1.43	1.39	
	심리지표		50	50	50	60	50	
	ADR		87.13	83.63	86.13	89.55	90.35	
	이동평균		20일	84.95	85.48	85.29	84.75	83.80
	VR			84.32	125.82	97.36	92.50	130.73
자금지표			12/26 (수)	12/24 (월)	12/21 (금)	12/20 (목)	12/18 (화)	
국고채 수익률(3년)			2.88	2.87	2.85	2.88	2.90	
회사채수익률(무보증3년)AA-			3.33	3.32	3.30	3.32	3.33	
원/달러 환율			1,073.20	1,074.20	1,074.30	1,074.70	1,072.80	
CALL금리			2.73	2.73	2.72	2.73	2.72	
주식형(국내)			-	683,359	680,569	685,323	688,787	
주식형(해외)			-	261,727	262,063	262,464	262,860	
채권형			-	468,615	468,312	469,197	469,386	
고객예탁금			-	183,035	172,448	173,933	172,232	
고객예탁금 회전율			-	25.84	39.90	40.52	35.53	
순수예탁금 증감			-	8,388	-1,060	-864	-286	
미수금			-	1,285	1,055	1,179	982	
신용잔고			-	40,143	40,625	40,925	40,986	

단위: P, %, 천주, 억원 / 주: 고객 예탁금 회전율 = (거래대금/고객예탁금) x 100